

문기전 Moon Kijeon (b.1974)

@kijeon_moon

학 력 2004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개 인 전 2024 "빛의 잔상_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원주문화재단 전문예술인 창작지원 선정전시 (미술관 후, 강원)
 2024 <Q> (갤러리 A, 서울)
 2022 "나는 일련의 관계들의 조합으로 감각하고, 의식하며, 소통한다" VR 개인전 (artlamp.org/relationships)
 "빛의 잔상 -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원주문화재단 전문예술인 창작지원 선정전시 (미술관 후, 강원)
 "나는 일련의 관계들의 조합으로 감각하고, 의식하며, 소통한다."
 전시공모 당선 초대전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서울)
 2021 "잔상을 해석하며..." - Quantum-piece 드로잉 전 원주문화재단 (미술관 후, 강원)
 "나는 일련의 관계들의 조합으로 감각하고, 의식하며, 소통한다." 강원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선정 전시 (미술관 후, 강원)
 2020 "나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 인체산수 전 원주문화재단 전문예술인 창작지원 선정전시 (미술관 후, 강원)
 2019 "일련의 관계들의 조합 a set of relationships" (팔레 드 서울, 서울)
 "일련의 관계들의 조합 a set of relationships" 2019 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인 창작지원 선정 전시 (미술관 후, 강원)
 2018 "일련의 관계들의 조합 a set of relationships" (gallery GaBi, 서울)
 2017 "일련의 관계들의 조합 a set of relationships : Pa-ramanu 원자 너머에" (art space grove, 서울)
 2015 "기정사실(既定事實) fact accompli"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갤러리 그림손, 서울)
 2012 "silent" (갤러리 a-cube, 서울)
 2010 "세상 끝 조우" (Seed 갤러리, 수원)
 그 외 다수

초대 / 단체전 2024 "2024 연희아트페어" (cmgg, 서울)
 "2024시각의 바다" (PLACEMAK3, 서울)
 2023 "반추(反芻)" (cmgg갤러리, 서울)
 "You Better Cry" (Gallery A, 서울)
 "동상이몽(同床異夢)" 2023 은암미술관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은암미술관, 광주)
 "BLUE" 4회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23 강원갤러리 특별초대전" (갤러리 라메르, 서울)
 "드로잉전" (아트레온 갤러리, 서울)
 "탐하다."전 sono art 기획전 (sono art 갤러리, 서울)
 "㉸ : 아득하다." 3인전 갤러리 hom 기획전 (갤러리 hom, 서울)
 "연희아트페어Call for collector!" (cmgg, 서울)
 "BUILD UP ART FAIR" (대경뮤지엄, 서울)
 "갤러리 시작" 개관전 (갤러리 시작, 경기도)
 2022 "십이월 DECEMBER" 도로시 송년 카드전(도로시살롱, 서울)
 "인천아시아아트쇼 2022" (송도컨벤션센터, 인천)
 그 외 다수

수 상 2022 광주화루 10인 작가 선정
 2021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작가 등록
 2020 제3회 인카네이션 문화예술재단 예술상 수상

작 품 소 장 서울시립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오산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Artist's Note]

나의 주된 관심사는 '죽음' 이다. 다소 진부할 수 있는 주제이나, 나에게 있어선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마주설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한 공포의 대상이다. '죽음'은 '삶'과의 연결성을 찾아가고, "나는 누구인가?" 에서 "나는 무엇인가?" 라는 현재의 자문(自問)에 다다른다.

자문은 원론적 시각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생물학적 인체에서 정신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영역까지 '나'라고 하는 한 생명체에게 발생되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의심하며, "나는 왜 이렇게 감각하고, 의식하며, 소통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생물학적 신체는 크게는 피부-근육-뼈-내장-혈관-혈액-체액, 더 작게는 신경계-세포-분자-원자, 그리고 양자로 구성되어진다. 그리고 이것들로 이루어진 물리적 육체는 '나'와 관계되어진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들이는가? 또한 '정신'이라는 '자아세계'가 형성되어지는 과정과 이것들이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에게 다시 발현_소통되어지는 과정들을 작가적 상상으로 추론해가며 작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작업은 이 해체되어진 생물학적 인체와 정신,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성을 찾아가면서 파생되어지는 자문(自問)과 함께 진행되어지며, 작업에 따른 진행 방향은 현재 다음과 같은 섹션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 1) 감각기관들의 정보 수집_전달_저장에 관한 드로잉 작업
- 2) Quantum
- 3) Quantum-piece
- 4) 자아풍경Q-S(Quantum-selfscape)
- 5) 관계풍경Q-L-R(Quantum-Landscape-Relationship)
- 6) 인체산수Q-L-A(Quantum-Landscape-Anatomy)
- 7) 빛의 잔상 -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뇌 속에 흐르는 전기-화학적 신호 엿보기)